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6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6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김기석

목 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1
II.	활동보고	2
	1. 부르키나 파소 '갭아(GAPA)'사업	2
	2.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12
	가) 국경없는 교육가회 세네갈 과학 수학 교육 개선 사업.....	2
	나) 세네갈 사업지역 방문	
	3. 케냐 메루지역 도서 지원	18
	4. 후속세대 양성사업	20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	20
	나) 캠프 후속활동 '배워주미 4기' 출범	20
III.	EWB 소식	28
	1. 국경없는 교육가회-Africa Motors MoU 체결	
	2. EWB 간사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	28
	3.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9주년 기념 Honor Club 창단식 개최... 30	
	4. 제 66 차 UN DPI/NGO 컨퍼런스 참가.....	33
	5. 세이브메뉴 적립금 전달식.....	34
	6. 김한울 홍보대사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참가.....	37
	7. 호세 루이스 장 사비도 초청 제 93 회 밀알음악회.....	40
	8. 2017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선정	42
IV.	2016 년 정산 세입 제출 보고	44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46
VI.	2016 년 후원자 명단.....	47

I.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6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후 빈곤 종식, 복리 증진, 교육 보장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열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년도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력 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의 이행 과정 중에 있으며,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지원 아프리카 3개국 동료평가 사업,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II. 활동보고

1. 부르키나 파소 '갭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

GAPA사업은 EWB에서 진행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부르키나 파소의 극빈 농촌 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퇴치 사업(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GAPA)이다. GAPA사업은 현지 파트너 기관인 부르키나 파소 비정규교육진흥협회(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Non-Formal Education; 이하 APENF)와 함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기관 최초로 2014년 유네스코 세종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수상하였다. 2013년부터는 광명시의 지원으로 세종문해교실을 건립했으며, 이곳에서 토착어 외에도 부르키나 파소 공식언어인 불어 문해교육이 추가로 신설되어 100%의 통과율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기술훈련과목도 증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가) 부르키나 파소 대통령과의 만남



앙리에뜨(Mrs. Henriette) 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 명예영사(왼쪽부터), 크리스티앙 카보레(Mr. Christian Kabore) 부르키나 파소 대통령, 고선윤 EWB 특보위원, 김기석 EWB 대표 겸 주 대한민국 부르키나파소 명예영사가 부르키나파소 대통령궁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지난 7월, 국경없는 교육가회(EWB) 김기석 대표와 일행은 부르키나파소 크리스티앙 카보레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경제개발과 교육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2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르키나파소 카보레(Kabore) 대통령은 "EWB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빈곤퇴치사업을 진행해 여성농민 역량 강화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카보레 대통령은 지난해 54%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7년간 장기독재가 이어져 지난 2014년 이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지난해는 독재잔당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정권을 일으킨 카보레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를 건설하고 교육과 보건시설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김기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특별보좌관제 실시를 제안하는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지속해온 빈곤퇴치사업을 지속시켜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들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르키나파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시절 공관을 철수해 한국 상주공관이 없으며, 주코트티부아르 한국대사가 겸무하고 있는 최빈국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공적원조를 집중하는 중점협력대상국에도 포함되지 않는 약소국이기도 하다.



문해교육 수업중인 여성들

나) 부르키나 파소 사업지역 방문

박수정 팀장과 이다영, 민선홍 간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GAPA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부르키나 파소와 가두구를 방문하였다. GAPA사업에 대한 하반기 모니터링은 크게 실무자 회의와 공동협의회, 마을 방문,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실무자 회의 진행 현장



공동협의회 진행 현장

우선 첫 번째로 11월 16일(수)에 EWB와 APENF 실무자들 간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실무자 회의는 각 마을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Operator, 이하OP)들과의 공동협의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 전담 기관의 실무자들끼리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진행하는 회의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실무자 회의에서는 하반기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협의회 때 어떤 안건을 제시할지, 또 각 마을별 상황과 OP들에게 요청 및 제안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으로 11월 17일(목)과 18일(금) 이틀에 걸쳐 사업에 대한 공동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는 EWB와 APENF의 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4개 기관의 OP들이 참여하였다. 공동협의회 1일차 때는 OP들과 APENF 측의 활동보고 및 현 문제점과 향후 해결·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일차에는 소액대출 재개를 위한 소액대출 전용 은행창구 개설에 대한 토론과 EWB의 활동보고, 2017년 GAPA사업 계획에 대한 공유가 진행되었다. 이번 하반기 때는 소액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OP들의 활동 보고가 상반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소액대출을 재개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 덕에 소액대출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레오 마을에서 진행 중인 양계 시범사업 계사



양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중

실무자회의와 공동협의회를 통해 하반기 GAPA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파악한 뒤, 실 사업지 방문을 위해 레오 지역을 방문했다. 현재 레오 지역에서는 양계 소액대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을 OP의 도움을 받아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계사 및 닭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애로사항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닭들에게 퍼지고 있는 전염병과 부실한 사료로 인한 건강 악화 등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강구해보는 시간을 통해 양계 소액대출 사업의 실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점뿐만 아니라 확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출장의 주목적은 GAPA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및 평가였지만,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 시작을 위한 사업지 탐방과 홍보영상 제작의 활동도 진행하였다.



홍보 영상 촬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레오 완(WAN) 마을을 방문하여 EWB의 기관 홍보 및 후원영상 제작을 위한 인터뷰 촬영을 하였다. 글자를 알지 못하던 여성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깨우치게 되면서 일어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실제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단순히 우리가 잘 모르는 제 3의 외국어를 보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삶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사라진 엄청난 일이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랬던 그들이 글자를 깨우침에 따라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뿌듯함으로 벅차올랐다.



지냐레 마을 주민들과의 단체 사진

그리고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지냐레(Ziniare) 마을과 사바 마을을 방문하였다. 지냐레 마을을 먼저 방문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일행 한 명 한 명을 다 반갑게 맞아주고 따로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해주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될지에 관한 조사와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을도 둘러본 뒤 떠나려는데 마을의 족장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살아있는 닭까지 선물로 주어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바 마을에서는 소액대출과 경제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였다. 유엔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의 부르키나 파소 지부 직원과 사바의 카쓰 포플레르(Caisse populaire)라는 대출기관과 함께 사바 마을에서 진행되는 소액대출 진행방법과 경제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GAPA사업과의 연계 및 적용 방안에 대해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바 마을 경제교육 현장

14일이라는 출장 기간 동안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사업의 탐색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를 향해 보여준 현지 파트너 기관과 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신뢰였다. 어느덧 GAPA사업을 진행한 지도 7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일까,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GAPA사업이 우리만의 사업이 아닌 그들의 그들에 의한 또 그들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하반기 출장을 마무리하였다.

2.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실행

가) 세네갈 과학수학 교육 개선 사업 모니터링 방문기



글: 김주훈 EWB 교육개발협력단장

■ 사업 개요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지난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빈곤지역인 게자웨이(Guediawaye)에 위치한 GSTS BAAL(The Groupe Scolaire Tierno Sileymaani BAAL School Group)학교를 대상으로 과학 수학 교육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네갈 극빈층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수학과 과학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후 지속적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수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동기 부여를 위한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실시와 학년말에 이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과학 주간 행사, ICT를 통한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학생들이 평소에 과학 기술에 대한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주간행사가 있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과학주간행사의 주요 내용

세네갈에서는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어 짧은 겨울방학이 있고, 6월말에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과학주간행사는 일종의 과학축제로 일년 동안 교과시간에 이루어진 과학 수학 교육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교 학생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 교육자, 학부모, 교육행정가, 동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를 빌어 활발히 활동한 학생들이나 팀을 선발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나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과학주간행사는 6월 23일(목)일부터 25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23일과 24일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중심의 행사를 실시하였고, 25일에는 우수활동 학생과 팀에게 시상하는 시상식과 주변의 교육자와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사회 인사와 동문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진행된 과학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음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추는 코너, 태양에너지 이용 프로그램, 컴퓨터 조립, LED 램프 만들기, 3D 프린터 코너, 고고학 코너,

수학영재 프로그램, 화학반응 코너, 광학코너, 발전기와 모터 만들기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태양 에너지 이용 프로그램**

태양에너지 프로그램은 대형 태양광 반사경을 만들어 태양광 반사경으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세네갈 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깜짝 놀랄만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양광이 불을 붙이고, 기름에 밀가루 반죽을 튀길 정도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평소에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컴퓨터를 해체하는 장면



태양광으로 종이에 불을 붙이는 모습

- **LED 램프 만들기 프로그램**

땀납과 인두를 이용하여 LED불을 밝히는 PCB 회로기판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만든 LED등은 학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코너는 최고 인기코너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몰려와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인기비결은 LED등을 만들어 불을 켜는 활동이 재미있고 만든 것을 학생들이 가져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세네갈의 전자공학 발달을 위하여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



만든 LED 램프를 가지고 자랑하는 학생들

- **컴퓨터 조립 프로그램**

세네갈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가 겨우 넘는 세네갈의 공산품 가격이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싼 공산품 가격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모방입니다. 세네갈에서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어 싸고 품질 좋은 컴퓨터를 생산해 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컴퓨터 조립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이 학교에 컴퓨터 조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졸업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세네갈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합니다.



컴퓨터를 해체하는 장면



해체한 컴퓨터를 플라스틱 통 속에 재조립한 모습

- **발전기와 모터 만들기 프로그램**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도움으로 세네갈 여건에서 쉽지 않은 파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세네갈의 학교 교육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과학 축제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발전기 만들기와 모터 만들기 자료들을 준비하여 한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정규수업에서 실험이나 활동 중심의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곳의 교육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터와 발전기 만들기 자료를 교사 워크샵에 필요한 수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여 간단한 소모품만 현지에서 마련한다면 전교 학생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교사 워크샵은 이 활동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수과정이었습니.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준비한 자료가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만의 하나라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다면 불편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교사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여 아마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네갈에도 이런 활동위주의 과학수업이 하루빨리 일반화되어 세계적인 과학자가 많이 배출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발전기를 만드는 장면



모터를 만드는 장면

- **3D 프린터 코너**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코너도 개설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D 프린터로 계속 프린팅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고 다른 3D 프린터로 나무를 잘라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모양이나 글자를 나무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벽화 그리기 코너**

GSTS BAAL은 세네갈의 40년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 담장을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그림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학생들의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라는 경영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였습니다.

- **그 밖의 학생들의 활동 프로그램**

이외에도 과학주간행사에는 음악과 춤의 코너, 수학 영재반 프로그램, 광학 프로그램, 고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학생들이 과학에 더욱 흥미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 **과학주간 시상식 및 마무리 행사**

토요일에는 과학주간행사 시상식과 마무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에는 학생, 학부모, 주변학교 교육자, 졸업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격려하며, 또 그 동안 학교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세네갈의 유명한 작가도 초대되어 좋은 글을 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행사였습니다. 초대받은 모든 인사들이 학생들의 시상식에 참여하여 관련 활동이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여 초대받은 분들도 의미가 있고, 상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인상 깊은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보내는 졸업생도 초대받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사들도 초대받아 이들에게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통하여 더욱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동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도 개최되어 매우 뜻 깊은 과학주간 마무리 행사

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의 행사는 우리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네갈 교실 수업 변화 가능성

저는 학교를 방문하면 교실을 보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노트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면 그 학교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수에서 학생의 참여에 의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기 위하여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표현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한 표현결과가 가능하면 많은 동료들과 지도 교사에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GSTS BAAL에도 학생들의 자기표현기회를 확충하고 교실의 벽면을 그런 아이디어와 활동결과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돌아보는 중에 한 교실에서 작년의 연수 받은 사항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교실 공간에 게시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실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진행한 연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하였는데 과학축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애쓰신 GSTS BAAL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컴퓨터 기증 및 교실 수업에서 활용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이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대를 기증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어려운 NGO 재정여건에서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컴퓨터를 제공한 것은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ICT 교육과 교실수업을 보다 학생들의 활동중심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원한 컴퓨터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잘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업지도를 하시고 계셔서 세네갈에서 컴퓨터 활용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축적된다면 세네갈 학교의 교실 수업모습이 학생들 활동 중심의 자기주도적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모델이 계속 이 학교에서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차적으로 점차 대수를 늘려 이 학교에서 원만히 ICT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트북 기증식



기증받은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

나) 교원연수 현장 방문



GSTS BAAL 학교의 전경



40주년을 맞이해 벽화가 그려진 GSTS BAAL

6월달에 개최된 과학주간 행사에 이어 11월에는 현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가 개최되었다. 교원연수는 총 5일 간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에는 교원연수의 개최를 축하하는 개최식 및 환영식이 열렸다. 세네갈 주 정부 교육부 인사부터 다카르대학 (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e Dakar; UCAD), 서중부아프리카교육연구원(Réseau Ouest et Centre-Africain de Recherche en Éducation; ROCARE) 등 다양한 교육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교사들이 교수법 발전을 위해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했다.

교원연수는 학생 중심 교수법에 대한 이론부터 실제 적용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었으며, 진행된 연수 세션에는 학생 중심 교수법에 대한 연습활동과 수학과 과학 교과의 교수활동 계획과 조직, ASEI/PDSI 교수법, 기하학적 접근, 교구재 활용법, 조별활동법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이 중 직접 교구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가장 호응도가 높았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구재를 만드는 터라 형형색색의 종이를 접고 오리고 색칠하는 열정적인 교사들을 통해 출장팀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던 순간이었다.



직접 교구재를 만들어 발표하는 선생님

또한 GSTS BAAL의 행정 담당자와 추후 사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 한해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평가와 피드백을 주고 받았으며,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항상 고민하고 발전하는 교사들로 변화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기다린다면 더 나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믿는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교원연수 진행 중인 모습

출장 기간 동안 교원연수 모니터링 외에도 현지 국제기구 및 NGO들과 미팅을 갖는 등 사업 확장 및 발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다. 현지 개발 기관들의 면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세네갈 사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출장을 마무리하였다.

3. 케냐 메루지역 도서 지원



무카라마투 초등학교 도서 기증 사진

EWB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케냐의 비영리기관인 빌리지 트러스트(The Village Trust, 이하 TVT)와의 협력을 통해 케냐 초·중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진행은 주로 도서 기증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2014년에 초·중등학교 9곳에 도서를 기증한 것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으로 2개 학교에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도서 기증은 10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케냐 메루(Meru) 지역에 있는 무카라마투(Mukalamatu) 초등학교와 뷰리(Buuri) 중등학교가 그 대상이다.

케냐의 시골학교들은 학교 건물 및 시설의 부족,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의 부족, 교재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루 지역에 있는 무카라마투 초등학교와 뷰리 중등학교는 열악함이 더 심각하다.

무카라마투 초등학교는 지역 내에서 가장 가난한 초등학교 중 하나로, 학생들이 책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건물도 판넬로 대충 형태만 갖추었을 뿐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다. 게다가 건물 내 교실 수가 부족해 유아(만 2세~5세)들까지도 나무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무카라마투 초등학교 학교 건물과 아이들 모습



뷰리 중등학교 교실 모습

이러한 사정은 뷰리 중등학교도 비슷하다. 무카라마투 초등학교에 비해 건물은 좀 나은 상황이지만, 1개의 교실에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차서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곳 역시 제대로 된 교재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EWB와 TVT는 메루 내에서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두 학교에 도서를 기증하였다. 기증은 현지 기관인 TVT가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종류와 양을 추려내면 도서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EWB가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식지원을 받는 무카라마투 학교 아이들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마카라마투 아이들

또한 현지 조사 결과, 마카라마투 초등학교는 도서 외에도 기초적인 의복과 음식, 활동에 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급식과 옷, 축구공 기부도 진행되었다. 물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노래로, 말로, 행동으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며 자신들을 지원해준 EWB와 그 후원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나 이번 후원을 통해 축구공을 난생 처음 본 마카라마투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돌과 가시로 뒤덮인 험준한 길을 맨발로 뛰어다닐 정도로 무척 기뻐해서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또한 자신들이 기증 받은 책을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책을 깨끗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뷰리 중등학교 도서 기증 단체 사진



뷰리 중등학교 도서 기증을 받은 학생 모습

이번 도서 기증을 통해 두 학교의 학생들은 교육을 향한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교육환경 곳곳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EWB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TVT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메마른 불모의 땅, 메루 지역에 심어진 희망의 꽃씨. 점점 더 많은 꽃씨가 그 땅에 심어지고 또 꽃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EWB는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4. 후속세대 양성사업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교육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부문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현장 감각을 익히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캠프이다. 청년교육가 캠프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캠프는 7번째 진행된 캠프이다.

2016년 8월 23일~25일, 3일간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BINGO)가 함께 주최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이 신촌 새롬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 개회식 사진



첫째 날 강의 사진

첫째 날에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 주제로 HoE의 박자연 대표,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윤리와 철학' 주제로 웰 인터내셔널 방글라데시 지부의 이득수 지부장,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사례 I' 주제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사무국장의 강이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전반적 이론부터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철학에 대한 강의와 실제 사업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한층 고취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참가자들도 다수 참석을 해서인지 각 강의별 질의응답 시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둘째 날에 진행될 토론을 위한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를 시청하였고, 첫째 날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 강의 및 활동 사진

이어서 둘째 날에는 BINGO의 권기정 대표의 '조별 영화토론 및 발표' 시간으로 캠프가 시작되었다. 전날 시청한 영화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또 개발협력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조별끼리 열띤 토론을 하고 이를 발표해보므로써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는 부르키나 파소의 공연단인 '쿨레칸'과 함께 서아프리카의 전통 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부르키나 파소의 전통 춤을 단계별로 나눠서 배워보고 안무가인 '엠마누엘 사누(Emmanuel Migaelle Sanou)'와 춤 대결을 펼쳐보기도 하고, 다 같이 자유롭게 춤을 춘 뒤, 명상 시간을 가졌다. 두 발이 까매질 정도로 열정적인 맨발의 댄스를 통해 참가자와 스태프 모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마지막 순서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오혁준 간사가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사업사례' 강의를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날 강의 및 활동 사진

마지막 셋째 날에는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의 직무와 진로' 주제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이창덕 과장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이어서 현장 실무자들과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장기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4명의 현장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 쪽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던 데다가 현장의 실무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가자들의 눈이 더 빛났다. 토크콘서트만으로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기에 희망 멘토별로 새로 조를 구성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멘토링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부터 연애 사업과 같은 사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며 그간 진로에 관해 가졌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BINGO의 변정희 팀장이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등 빙고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개발협력의 또 다른 진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셋째 날 활동 사진 2

모든 순서가 끝이 난 뒤,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미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 또는 참가자 개인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이 첫날 적었던 자기소개서를 사회자인 박수정 국장이 한 명 한 명 소개해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조원뿐 아니라 참가자들 전체가 서로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개발협력단장인 김주훈 단장의 폐회사가 이어졌고, 캠프 진행 요원 모두가 참가자 개인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 단체 사진

가) 캠프 후속활동 '배워주미 4기' 출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6”의 후속 활동인 '배워주미 4기'가 9월 23일 오리엔테이션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배워서 준다/나눈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에서 에서 착안한 '배워주미'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이다. 2012년도의 캠프 때 처음으로 배워주미 1기가 결성되었으며 올해로 제 4기의 배워주미 멤버가 구성되었다.



배워주미 4기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이번 배워주미 4기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협력에 관한 학습 및 토론부터 전문가 초청 강연, 개발협력 사업 프로젝트 구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워주미 4기의 총 인원은 8명이며, 스터디원들끼리 모임을 진행하되 EWB와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BINGO)가 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III. EWB 소식

1. 국경없는 교육가회-Africa Motors MoU 체결

2016년 2월 2일자로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부르키나 파소의 아프리카 모터스(Africa Motors)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 협약은 두 단체의 교육 및 개발 사업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아프리카 모터스의 대표 집무실에서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논의가 이루어졌다. Africa Motors에서 대표 지브릴 카나조에(Djibril Kanazoe)와 그의 형제 우세니 카나조에(Ousseini Kanazoe), 알라산 카나조에(Alassane Kanazoe)가 참석했고, 국경없는 교육가회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백광순, 신주용 간사가 참석했다. 증인으로는 부르키나 파소 기초 문해 교육부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lphabétisation; MENA) 소속이자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오랜 친구인 서지 킬렘(Serge Kyelem)이 함께 하였다.



국경없는 교육가회 신주용, 백광순 간사와 아프리카 모터스 대표 지브릴 카나조에(Djibril Kanazoe), 형제 우세니 카나조에(Ousseini Kanazoe), 알라산 카나조에(Alassane Kanazoe)

아프리카 모터스는 부르키나 파소의 자회사인 카나조에 프레르 그룹(Kanazoe Freres Group)의 계열사로, 지난 2015년에 한국의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개설한 바 있으며, 대표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본 기관의 부르키나파소 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아프리카 모터스는 부르키나파소 농민들을 위한 교육사업, 현지 기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 기대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 EWB 간사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



협력사업부 김주원 간사와 이다영 간사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주가나안농군학교 단기(의식개혁)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다. 2박 3일간 진행된 교육기간 동안 가나안 교육을 통해 가나안 개혁의 역사와 개혁정신을 배우며 앞으로의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의미를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한 굳은 다짐을 했다. 유익한 강의와 농장체험을 통해 '땀을 적게 흘리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2박3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위해”

협력사업부
김주원 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국경없는 교육가회에서 일하게 된 김주원 간사입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새 식구가 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의식 개혁 교육을 이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위치한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로 떠나는 것이 마치 수학여행처럼 느껴졌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버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농군학교에서는 5시에 기상해 아침 구보를 해야 하고 10시에 취침을 해야 하며 강의 중과 취침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도 그 동안 도시의 탁한 공기에 지쳐 있던 저에게는 참 반가운 것들이었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짧게나마 하고 갈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가 김용기 선생님의 사상에 대한 교육부터 갈등 관리 등 참 다양한 교육들을 이수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김범일 교장 선생님의 교육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교단에 꿋꿋이 서서 강의하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오신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선생님 연세가 되었을 때, 살아온 삶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군 학교 둘째 날에는 농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하우스에서 기른 케일을 하나 하나 뽑아 농장 한편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장 일이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점점 함께 농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꾀 부리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농장 실습 후에 먹는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몸소 느끼며 참된 노동 후에 먹는 밥의 가치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농군 학교를 다녀온 만큼,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밥을 먹을 때 농부의 땀을 생각해서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까지 농군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을 실천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2박 3일 동안 강의를 진행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생활지도를 도와주신 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 봉사, 희생. 행복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협력사업부
이다영 간사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가게 된 가나안 농군학교.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었고 내 일터와 내 생활패턴에 익숙해질 이 시점에 낯설고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니.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참 억지스러웠다. 하나 다행인 것은, 사무실 내 옆자리 김주원 간사님과 몇 번 안면이 있는 일가재단 임혜진 간사님이 함께라는 점이였다.

도착했을 땐 우선 산을 깎아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의 경사에 한번 놀랐고, 강의 중 핸드폰도 내야 하고 2박 3일간 간식도 먹을 수 없어 내 빵을 반납해야 한다는 교관의 안내에 또 한번 놀랐다. 이런 나에게 더욱 놀라운 일은 국경없는 교육가회 두 간사의 자리가 맨 앞 가운데라는 것이었다! 아, 나는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이 잘 안될 것임을 미리 알리고, 15명 남짓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첫 강의를 들었다. 강의자료 중,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항아리가 옆어져있으면 아무것도 담아가지 못한다는 PPT 슬라이드가 유독 기억에 남았다. 나의 마음그릇이 저렇게 뒤집혀있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 그릇을 바로 세워서 여기 온 김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개척정신도 제대로 배우고 재미있게 보내며 좋은 것들로 채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강의를 듣는데 강의라기보다는 힐링 프로그램 같았다. 먼저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했지만 놓치고 있던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고 나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 소중한 가족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새기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간식을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생활교육과 식탁교

육, 농장실습 등은 평소 감사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온몸으로 느끼는 기회였다.

나의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고, 절제와 배려를 받아들이고 나니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구호와 농군학교의 사상이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며 다스리고,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삶,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는 삶,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의 태도. 알도록 배우고, 힘써서 일하고, 겸손히 섬김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빛나게 하는 '가나안'을 향한 삶을 돌아오는 길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 그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또 나의 일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의 배움은 엄청 크고 강한 임팩트가 아니다. 당연한 것, 일상 속의 묵은 것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정성껏 닦아준다. 그 울림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잔잔하게 울린다. 이 울림이 힘이 있어 오래도록 나를 깨우면 좋겠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깨워주는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일상을 살도록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야겠다. 소중한 기회를 거저 받을 수 있어 감사한 하루를 또 살아야겠다.



3.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9주년 기념 아너클럽(Honor Club) 창단식 개최



단체사진

지난 5월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 이하 EWB) 창립 9주년 기념 Honor Club(아너클럽) 창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EWB 김기석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과 EWB 아너클럽의 회원이 된 (주)다비육종 윤희진 회장과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이사장, 일가재단 김찬란 사무처장 등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EWB 아홉 번째 생일과 EWB 아너클럽의 창단을 축하했다.

EWB 아너클럽은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세계 각지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상을 후원해주신 분들을 아너클럽의 회원으로 모신다.

김기석 대표는 아너클럽의 첫 번째 회원이 된 윤희진 회장과 이현 이사장에게 EWB 임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희진 회장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기석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이현 이사장은 "9주년을 맞이한 EWB에 축하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그마한 정성을 보냈는데 이렇게 큰 선물로 보답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에 화답했다.

이외에도 천 만원 이상 기부하시며 EWB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EWB 이무현 이사, 한국교육사고를 비롯해 익명을 요청한 기부자가 있었다.



EWB 김기석 대표(좌)와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이사장(우)



감사인사를 전하는 (주)다비족 윤희진 회장

이어 EWB 창립 9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김기석 EWB대표는 기념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EWB 아너클럽 회원 윤희진 회장님과 이현 이사장님 두 분의 든든한 기둥 밑에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해외 파견 간사들과 서울 사무국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념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기념사를 전하는 김기석 EWB 대표

또한 현재까지 부르키나 파소에서 활동 중인 현지간사들이 EWB 9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 EWB 아너클럽은 창단식을 시작으로, 국경없는 교육가회 사업지 방문 등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다양한 빈곤퇴치 활동에 함께 할 계획이다.

4. 제 66차 UN DPI/NGO 컨퍼런스 참가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지난 5월 30일-6월 1일, 3일간 제66차 UN DPI/NGO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국경없는 교육가회 단체 사진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NGO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NGO 컨퍼런스이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그 뜻을 함께 하였다.

5월 30일 열린 개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티나 갈라크 UN DPI 사무차장의 개회사와 함께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했다.



개회식

컨퍼런스는 3일 간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 진행되었고 동시에 전시장에서는 컨퍼런스 참가 기관의 전시부스가 운영되어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도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많은 기관 관계자 및 개인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를 소개하는 포스터와 주 사업지역 중 하나인 부르키나 파소의 다양한 사진들,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 전통의상으로 예쁘게 꾸며진 전시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기관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기관을 소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부르키나 파소에서 현지 기술 연수를 통해 수혜자들이 직접 만든 시어버터 비누와 함께 활동사진을 담아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예쁘게 꾸며진 EWB 전시 부스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들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 중 익히 들어본 국가들은 잘 알고 있지만 부르키나 파소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지도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지도와 사진을 드림스카이(Dreamsky)와 레드라인(Redline)에서 각각 제공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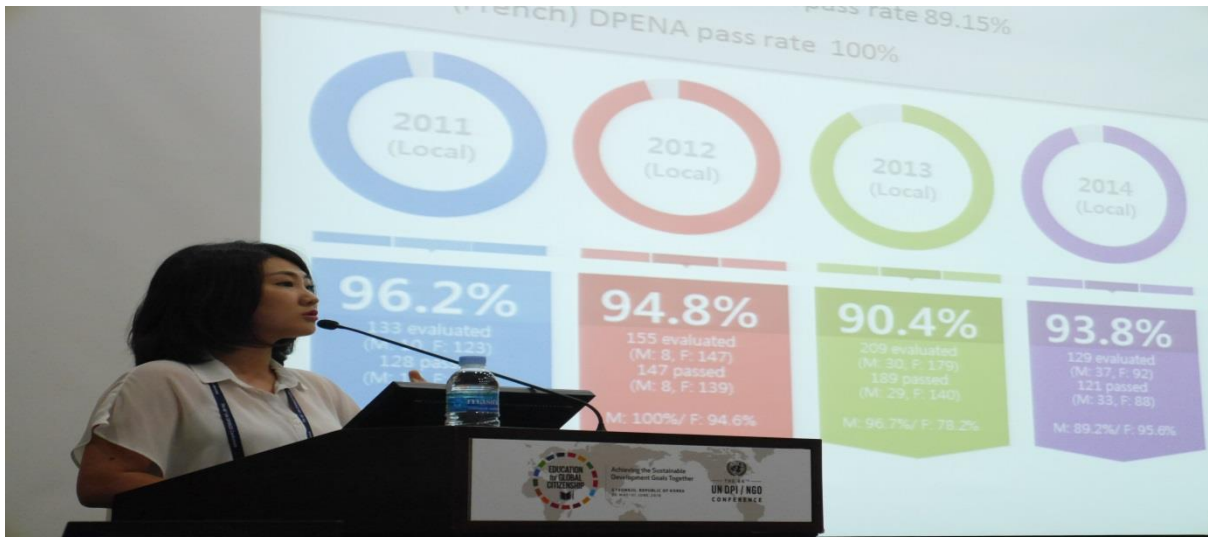


지도 위에 표시된 EWB 서울 지부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선물한 시어버터 비누. 이 비누는 부르키나 파소 수혜자들이 기술연수를 통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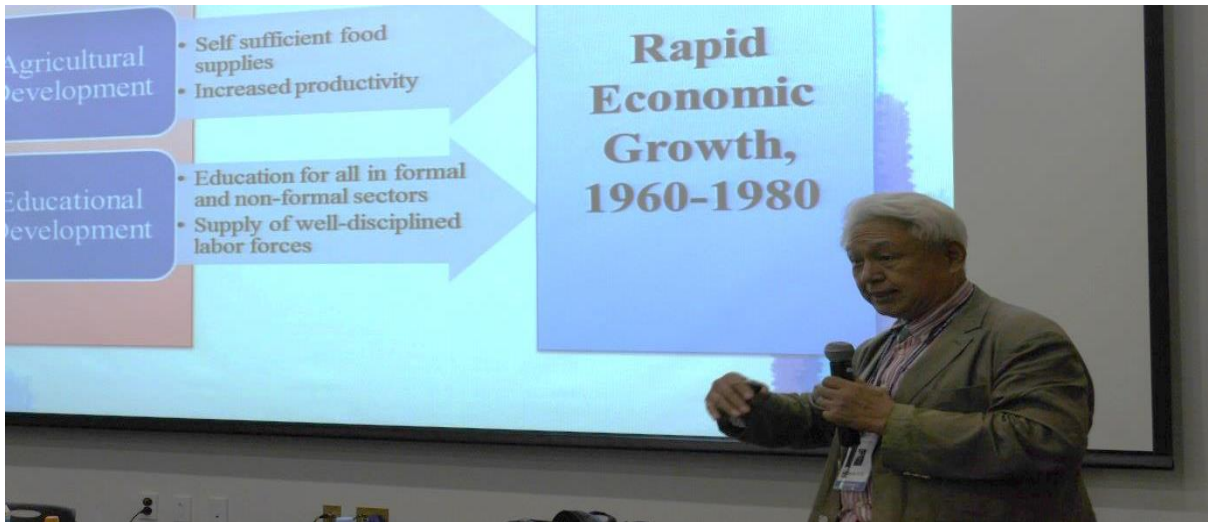
기관을 홍보하는 전시부스 외에도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Poverty Allevi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Education in Africa”라는 주제로 워크숍 세션을 개최하였다. 서울여대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한 워크숍은 서울여대 이선미 교수의 사회로 김기석 대표, 박수정 사무국장과 굿네이버스 니제르 SALOU Mohamet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주제와 관련한 사례 발표를 하였다.



발표 중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박수정 사무국장



발표 중인 굿네이버스 니제르 SALOU Mohamet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발표 중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의미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갔다.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워크숍을 마치고 서울여대/국경없는 교육가회/굿네이비스가 함께 찍은 사진

3일 간의 컨퍼런스 일정은 크리스티나 갈라크 UN DPI 사무차장의 폐회사와 '경주 선언문 (Gyeongju Action Plan)'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NGO 관계자 및 대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고 채택된 경주 선언문의 내용이 각각 실현되기를 바란다.

5. 세이브메뉴 적립금 전달식

6월 21일 '세이브메뉴'의 첫 적립금 전달 행사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꽃, 밥에 피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이브메뉴 1호점인 '꽃, 밥에 피다'에서 석 달 여간의 시범기간 동안 모인 세이브메뉴 적립금을 전달받는 자리로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를 비롯해 르프로제(LE PROJET, Ltd)의 이형은 대표, 세이브메뉴 1호점 '꽃, 밥에 피다'의 송정은 전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세이브메뉴는 르프로제(LE PROJET, Ltd)가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식당에서 고객이 세이브메뉴를 선택하면 음식의 일정량을 덜어 그 만큼의 액수가 적립이 되는 펀딩 조성 공익 캠페인이다. 적립금은 국내외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주)우리밀급식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유기농 한식 레스토랑인 '꽃, 밥에 피다'에서는 세이브메뉴 한 건당 500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세이브메뉴가 운영되었으며, 석 달 동안 총 258건의 세이브메뉴 주문이 이루어졌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르프로제와 업무협약을 맺어 조성된 기금이 아프리카 교육발전의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기석 대표는 이날 "작은 출발 같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일선 매장에서 고객에게 세이브메뉴를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웃을 돕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쓴 것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업체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정은 전무이사도 "석 달 동안의 적립금 자체는 작은 액수이지만, 모두의 수고와 기대가 녹아있다"라면서 "고객에게 세이브메뉴의 취지를 설명, 동참을 부탁하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기부문화가 우리나라에 더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인사말을 전하는 송정은 전무이사



적립금을 전달받은 국경없는 교육가회

이 날 전달받은 세이브메뉴의 적립금은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아프리카에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LE PROJET

르프로제는 영리추구에만 머물지 않고, '더불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상에서 기부로'라는 적극적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사회공헌 자체를 사업영역으로 발전시킨 '세이브M'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취합, 분석된 정보의 확산 플랫폼이자, 적극적 사회공헌 실현을 연구하는 브랜드 채널, '르프로제미디어랩'을 산하에 두고 있다. 현재 르프로제미디어랩은 국내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 방송인 '올어바웃 아프리카AAA'를 제작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스토리펀딩에 세이브메뉴 스토리를 연재 중이다. 이 밖에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칼럼 및 다수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6. 김한울 홍보대사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참가

김한울 홍보대사가 한국인 최초로 '클리퍼(Clipper) 세계일주 요트대회'에 참가했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프로 선장과 일반인 승무원들간의 11개월간 14개 항구 총 7만km를 항해하는 극한의 대양 세계일주 경기이다.

김한울 홍보대사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페넌트와 함께 '국경없는 항해'를 하였다. 지난 해 8월 30일, 영국 런던을 출발하여 브라질, 남아공, 미국 등 여러 나라를 거쳐 현재 북아일랜드에 도착하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올해 7월 30일 런던에서 그 대장정을 마쳤다.



EWB 페넌트와 함께 대서양 횡단 중인 김한울 홍보대사

11개월의 항해를 전체 3위라는 값진 결과로 마무리 한 김한울 홍보대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한 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도 요트대회를 알리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개최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그는 금년에 한국팀을 구성해 '롤렉스 시드니 호바트 요트대회' 참가를 예정 중이다. 이 외에도 다른 대회들을 통해 항해사로서의 길을 계속 이어갈 준비 중인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7. 호세 루이스 장 사비도 초청 제 93 회 밀알음악회

10월 14일, 국경없는 교육가가 후원하는 제 93회 밀알음악회가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93회 밀알음악회는 특별히 '애니깽'의 후손인 멕시코 바이올리니스트 '호세 루이스 장 사비도(Jose Luis Chan Sabido)'를 초청한 음악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밀알음악회 공연 사진

애니깽은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켄'을 이르는 말로, 일제시절 일본의 침략과 수탈을 피해 중남미로 노동이민을 갔던 조선인들이 멕시코 선인장 농장에서 일했던 것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할아버지가 애니깽인 이민자 3세대, 호세 루이스 장 사비도씨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지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1989년 멕시코 유카탄주 정부의 예술훈장을, 지난 2008년에는 유카탄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유카탄 비엔나 음악, 예술 아카데미 총 예술 감독과 퀴티나 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최종상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카이로스 앙상블(Kairos Ensemble)'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안토니의 비발디의 '사계'와 더불어 멕시코 유카탄 전통음악, 한국 전통음악이 연주되었다.



호세 루이스 장 사비도와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 인사

음악회에는 준비한 좌석이 모두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었으며, 연주가 모두 끝난 뒤 앵콜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나 이번 음악회에 멕시코 대사관 측에서도 참석해 한국과 멕시코 간 문화교류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호세와 EWB 단체 사진

호세 루이스 씨는 이번 방한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바이올린을 통해 한국과 멕시코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러운 방한이었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 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8. 2017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선정

2016년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총 사업지원비 100억원 규모의 '나눔과 꿈' 공모 사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환경, 문화, 글로벌 복지분야, 총 4대 분야로 모집한 사업 공모에는 총 1천 45개의 기관들이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70여 명의 심사위원단이 1, 2차에 걸쳐 진행한 심사를 통해 최종 총 51개의 지원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단체 단체사진



선정증서 수여사진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글로벌복지분야의 선도적 복지모델화 사업으로 '양계 활동 지원 및 기술교육을 통한 부르키나 파소 농민 여성의 소득증대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으며, 16대 1의 높

은 경쟁률을 뚫고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의 보급과 양계 축산활동에 집중하는 대출활동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EWB 김기석 대표 소감 발표 사진

지난 12월 14일 중구 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나눔과 꿈’ 공모사업 선정기관 발표회에서 김기석 대표는 글로벌복지분야 사업 선정 기관을 대표하여, “농민들의 자립을 위한 양계대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기석 대표는 “사업 수행-목표 달성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 증빙에서도 ‘만점’을 기록하는 투명성 있는 기관임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서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르키나 파소와 같은 저개발 농촌국가에서 농업과 가축 사육은 경제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분야이다. 특히 그 중 양계와 같은 가금류는 무슬림과 같은 종교에 무관하게 수요가 높으며, 투입 대비 가장 빠른 회전율을 갖고 있는 가축 종류이다. 이 때문에 양계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는 높은 편이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양계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굿파머스와 협력하여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양계 대출 사업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 가정을 선정하고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시범가정으로 선정된 농가에게는 계사 건축과 가정별로 닭 100수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계사 건축에서 병아리 구매, 예방접종, 사료 구매와 다 기른 닭을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이번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보강할 예정이다.



글로벌복지분야 단체사진

이번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부르키나 파소 극빈지역 내 총 47 가정을 선정하여 양계 적정기술 교육 보급과 소액대출 사업, 그리고 협동조합 환경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은 사단법인 굿파머스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될 것이며, 양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 기술 교육 전문가도 양성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IV. 2016 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6 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6 년 수입	2016 년 지출	당기수익
414,185,194	311,357,533	102,827,661

2. 2016 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40,838,427	
후원금		정기후원금	22,986,473	
		부정기후원금	28,968,140	
		소계	192,793,040	
사업수입	사업수입	GAPA	9,722,127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4,728,860	
		UNDP	17,756,071	
		세네갈 교육사업	30,278,281	
		에티오피아 사업	12,548,506	
		ICC 건립기금 모금	5,645,077	
		세이브메뉴	169,059	
		청년인턴	49,912,461	
		청년캠프	1,700,000	
		소계	202,460,442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	27,015	
	기타수입	기타	18,904,697	
		소계	18,931,712	
합계			414,185,194	

3. 2016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GAPA	8,892,405	
		광명시-BF 평생학습관	62,442,060	
		UNDP	19,925,420	
		세네갈 교육사업	33,944,360	
		에티오피아 사업	20,947,273	
		ICC 건립기금 모금	6,031,045	
		청년인턴	42,680,700	
		청년캠프	2,499,040	
소계			197,362,303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54,234,004	
		사무국운영비	46,907,897	
		세금	487,540	
		기타	12,365,789	
소계			113,995,230	
합계			311,357,533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73722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만민교육 1,000 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 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 원 이상)

- **만민교육 후원자**

다비육종(윤희진)

- **빈곤퇴치 후원자**

김기석, 김민정, 김진환(학지사), 모선일, 모새골교회, 박선무, 박수정, 박창균, 정영훈, 한종석

- **문맹퇴치**

고소향, 고희은, 김경일, 김명진, 김성수, 김성식, 김성열, 김어진, 김윤희, 김은설, 김주선, 김주훈, 김준엽, 김지자, 김진이, 김태석, 김태윤, 김현숙, '꽃, 밥에 피다', 남영선, 류방란, 문삼은, 박에스더, 박태훈, 배정현, 손영우, 쉐위베이크(이미화, 조택자), 신봉철, 신선미, 신정철, 신현점, 안목, 안상길, 안옥진, 양길석, 양병표, 양은성, 여영기, 오은빈, 우병열, 우신자, 유재상, 이광수, 이기정, 이선정, 이윤복, 이정숙, 이정아, 이재찬, 이차권, 이태주, 이한별, 이향규, 이현정, 장용훈, 전종갑, 정미란, 정복희, 정운찬, 정진화, 정재환, 조상식, 조정아, 주현일, 차승주, 최채기, 허병부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